



동부전선 제7중단 군사위원 천을소장

경력:

본명 - 천유리 알렉산드로비치, 1914년 4월 29일에
원동병강 연해주 벨리예프 구역 철호니부르시 촌 변농민의 가정
에서 태어나났다. 1931년에 향농소학교에 입학하여 19
28년에 그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후 1930년 봄에 1931년 까지
아버지를 돕아 향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31년 가을
에 연해주 벨리예프 구역 불라야농가 촌에 있는 초중예

입학하여 3년만에 즉 1933년에 그 초중을 필하였다.
 1933년 9월에는 영해군 우부리쓰크 시에 있는 한인 사범
 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1937년에 우부리쓰크 사전을
 나온다음 원동변강 교육국의 파견에 따라 우부리쓰크 야곱
 테브 구역 비파고르촌 한인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일하였다.

원동으로 불어 한인들을 전반적으로 강제이주함과 관련하여
 1937년 11월에 북조비크 공화국 다슈켄트주 공출직 구역
 가라부촌에 도착하여 제복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였다.
 원울 선생은 강제이주 후 생활행편이 채안착되지 못한 조
 건하에서도 제복교원으로 계시면서 1939년 여름에 다슈켄
 트 시의 영침 사범대학 통신학부 력사학과에 입학하여
 1944년 하기에 졸업하고 국가 검정시험을 주관 중학교 력사
 교원이란 국가 직의 영침을 수여받았다. 원울 선생은 1945년
 10월까지 고등중학교의 위선있는 교원으로 일하시다가 주군
 사동위원의 명령에 따라 동년 10월말에 원동변강 제
 95군단 관할하에 도착하여 11월 1일부터 소련군 홍역
 관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이후 1945년 11월부터 95군단 1진전사
 령부 코라넨고 관할하에서 북한 산업기업을 국유화하는
 1946년 4월부터-1948년 8월 31일까지 조선인민군 공사, 1진단
 홍역관으로 일하였는데, 당시 군사청소도 대위였다.

1948년 9월 1일 - 1949년 5월 1일까지, 민족군항공 교도련
 대 홍역관, 군사청소 - 소좌;

1949년 5월 2일 - 1950년 10월 1일 민족보위성 문화출판
 국 선전선동부장 - 군사청소 중좌;

1950년 10월 2일 - 1951년 10월 5일 해군사령부 정무
 부국장. 군사청소 - 대좌;

1951년 10월 6일 - 1952년 10월 18일 - 항공사령부 기술

사단 정치부장, 군사청호 대좌 ;

1952년 10월 20일 - 1954년 10월 20일 까지 조선인민군

선봉사 책임주필, 군사청호 대좌 ;

1954년 10월 21일 부터 인민군 동북전선 제7군단 군사
위원 - 군사 청호 소장.

천을 선생은 1939년에 전련병 레닌공산청년회 회원으로 입당
하였으며, 1944년에는 레닌공산청년회 보증을받아 전련병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천을 선생의 복호들은 1930년 까지는 자기 경작지를 소유했던
못난 빈농이었다. 그 후 소련공산당의 단합화 정책에 따라 결핵
즈 회원이었다.

사상검토 :

천을 선생은 조선인민군대를 조직한 간부중의 한사람이었다. 천을
선생의 기본 특성은,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꾸준히 실천
함에 옮기며, 남을 잘 이해하고, 동정하여주는 성격이다. 그래서 그를
알고 계신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을 선생은 법이 없어 살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경력에서도 낮지만 12년 상응의 길을
발전하고 있었다.

인민군대내 가장 큰 대항, 군인들이 사상 동향을 좌우하는 "조선인민군
선봉사 책임주필 직무를 지내었다는 것은 상부에 얼마만큼의 신임을
받고 일하였다는 것을 더없이 보여 주는 것이었다. 당시 민족보위
상으로 있던 김광봉 상장은 천을 선생을 아주 신임하고 발전성
있는 간부로 인정하고 소련 군사아카데미에 공부하러 가시라고
무차 권고하였다. 그러나 겸손한 천을 선생은 당시 복잡한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군사대학을 세계 정세가 좀 완화 된 조건하에
서 나올 예정이라서고 때면 사양하시였다.

1954년 9월에 전 7군단 군사위원으로 있던 리춘백 소장의 인
원보화 조건으로 인민군대 군사위원 직부에서 철적, 제대 당하자 그
직부에 최고사령관은 천을 선생을 추천하였다. 그에 따라 그의

군사 칭호로 대좌로 붙여 노장으로 응접하였다. 당시 군단장 직책에는
별다른 출신 전문업 노장이 없었다. 7군단이 라는 연합부대는
인민군대의 전반적 후회적 동맹주 사형시에서 예비군들을 묶어
조직한 군사훈련 수준에 있는 예비병력이었다. 1951년 나월에
조선 땅에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강원도 석왕사 같은 삼십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전국 훈련은 하였으나, 훈련부대들이 전복다 진지
전에 좌절되고 있는 조건에서, 진북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당시 군단 본부는 강원도 아포에 위치하고 있었다.



1953년 8.8 부녀절을 계기로 김일성 최고사령관이 조직
한 초대연회에 참가한 천홍성생, 천선생이던 다음 노련
고문 부부, 박정애 김일성 등 차례로 서 있다.

1958년이 당정화과 인민군대내 사상통일이란 완전히 와
해된 형편이었다. 각 개 고급관들이 가슴속에 깊이 품고 있는 사
상 동향은 일치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벌써 4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상검토 운동은 김일성의 기대와 정반대로 군대내 어느정도
보유 되어 있던 사상적 통일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군관들이 상호
상대방을 적으로 보며, 어떻게 하던 하인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살아갈수 있다는 것과, 될수없는 대로 남의 허물을 신속히 발견

하여 상부에 급속히 밀고해야 신임을 얻을수 있다는 경신으로 살고
 있는 때였다. 인민군대내에서 김일성 파에게 제일큰 위협으로
 보이던 중국 영안파는 완전히 소멸되고 소련파도 끝장을 보는판
 이었다.

천윤선생은 천생남에게 악한일이라고는 해본적이 없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돕아주고 하면서 떠날때까지 살아왔지만 현정세
 가 돌아가는것을 살펴보니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지못하겠다는것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나 자기와 가장 다정하던 동북전선
 군사위원 김철덕, 2군단 군사위원 김항천 등 동무들이 반당 공파분파
 로 쫓겨, 출당된것을 보고 자기도 그들과 같이 예를 배우게 되었으며
 어떤 예방대책에 대하여 생각하려 하지할수 없게 되었다.

하루는 천윤선생이 자기부인 채만나를 시켜 평양에가 다녀오라고
 하였다. 천선생이 부인에게 당부한말은 평양에가서 따직남아 있는
 121년 소련간부들의 동향을 잘아라보라는것과, 자기 친동생 천이완을
 찾아가서 소련으로 돌아갈 무복을 하지 않겠는가? 고 물어보라하였다
 천동생 천이완은 당시 포병사령부 병기총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채만나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시김대로 "돌아갈 무복네" 대한 말을
 천이완에게 전하니 천이완은 그말에 별걱 일어서면, 말하기를 - 이게
 어떤 시키라고 내라 최고사령관께 그런 제의를 하였다가, 거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목이 떠러질수 없으니 까딱 생각도 하지
 말고 제자리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었다. 천이완이 그렇게
 말하게 된것은 기대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약 반년전에 민족
 보위상 김항봉이 모스크바로 출장가면서 가장 신임할수없는
 사람으로서 천이완을 데리고 동행하였다. 김항봉 보위상은
 서북전선 전선부대 혹은 연합부대 등에서 사관장, 군단장 직
 무에서 오래동안 있었으나, 민족보위성 범위에서는 천이완
 소장에게서 물어바야할 문제들이 많았으며, 그러나, 군사학 및 병
 기부문에 있어서는 들도없고 물어였다. 보위상이 천이완을 신

6.
임하게 된 것은 인민군대 조직창시불어 천을선생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친동생이 아무리 반대하였다 할지라도 시대
의 경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무심부대이 안아 있기
란 논공방석에 올라앉은 격이었다. 때문에 천을선생은 또 다시 북
인을 평양에 보내되, 이번에는 "물리학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결심"을 전하여, 부분적 물건수속도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자기
는 아이들을 소련에 살고있는 둘째동생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소련 대사관에서 그것을 수속한다든것으로 전하였다. 어떻게 천을
선생 양쪽은 결심하기를, 자기를 북쪽은 소련에 가지 못하면 조선에서
죽는 한이 없으라든 아이들은 자위로엔 소련 땅에 가서 잘라고 공부하
면 좋다고 살라는 것이었다. 해 안나 사모님은 결심한대로 1959
년 하기 방학처기를 리용하여 아들 형제, 딸 음형제 5명으로
데리고 모스크바를 거쳐 하뉴켄호시에 도착하였다.

조선 특담에 낯말은 새가 나르고, 낯말은 쥐가 나른다고, 7군단
군사위원 천을노장이 자기 아이들을 돌려보내어 먼저 소련에 보
냈다는 소문이 당중앙에까지 전달되자 중앙당 사상검토 지도부는
유명한 반노분과 김형일의 지시에 따라 제 7군단 간부들이 사상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군사위원 천을노장의 사
상검토가 시작되었다. 7군단 지휘부 초급당단체 사상검토
당회를 정식시작한다고 선포한다음 매일 기본 잠업어후 7
시 불어 시작하여 저녁 8시까지. 그 당회의를 반부

사상검토 당회의에서 첫날 불어 천을군사위원에게 질문하
서 솔직히 실호하라고 권고한 물제는 생전 상상도 하지 않던
데 없는 폭동준비 지시를 하부에게 주었다는 물제와 왜 아이들을 소련
에 건너 보내며 보내고 자기로 광화 도망갈 예산인가? 1959년
8월 10 일경에 군단사령관 정물성은 평양에 올라가고 군단
책임자로 천을군사위원이 임시 있을 때였다. 동북전선 사령부
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8.15 국관 경비를 강화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금번^년반^년반^년 어시와 대 기념 경비주간은, 만약의 경위를 위하여, 배가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대로 하부 각사단, 연대, 대대 등에 있어서 경비 주간사이에 경각성을 높여 전투 준비태세를 경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사진은 천을 군사위원 동지가 중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항의원조 중국지원군 연합부대장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화경이다.

중앙당 사상검토 지도원들은 북한 중앙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폭동" 지시를 각사단에 주었다고 생집합을 걸고 배를 갖어 자복하라는 것이었다. 천을 선생은 배일 당회의가 개최되면 또 다시, 자기 는 아무런 폭동준비에 대한 지를 받은 일이 없으며, 또 하부에 다 폭동준비 지시를 준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거의 8.15 경비 주간에 특별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는 하부에 준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중앙당 지도원들은, 아예 당초에 그런 말도 듣지 않는 것 처럼도 할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고백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약 1주일 지나가지, 적의 용사가 되면 다른 단원들은 전부 다 집 에 가게 하라 천선생은 적의 만행 동반에 유치장을 만들고 거기

서 잠밖동안 단 몇시간 휴식을 주곤 계속 심문을하는것이였다. 밤을 자지 못하게 하기위하여서는 사상검호 지도원 21명에서 꼬대를 들어와서는 한 종이장을 주면서 자백서를 쓰라고 하고서는 또다른 지도원이 들어와서도 또다른 용례를 자백서를 쓰라고 하고서는 자기는 다른 방에 나가 좀 쉬다가 또 다시 들어오곤하였다. 이것은 필경에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이 마취되면, 그 형편에서라도 안한일을 했었다고 고백하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천선생은 잠을 자지 못하여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안한일은 안하였다고 하였다. 천선생이 유치장에 갇혀있어 있다는 소문이 포경양에 깃이자, 보위성 조형사령부 병기총국장으로 계신 천이완이 (천철의 천동생) 민족보위상에 가서 허가를 알아가지고, 7군단 본부 강원도 어포시에 (연희차) 자기 천병을 만나러 내려왔다. 동생은 형을 만나자 반갑게 인사를 부르리고 단 한말어만 물었다:

형님, 정말 그런 지시가 있었소? 하였다. 그에 형은 대답하기를 정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어떤 일을 떠밀고 백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마라도 죽는 무방에는 없다고, 하였다. 동생은 그말에 대답하여;

형님, 정말 똑똑 지시가 없었으면, 죽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하였다. 만약에 죽으면 재가 없으니 고백하리 부끄러워 자살하겠다고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동생, 나에게도 부탁을, 전라북도, 친척들에게 전부를 부탁으로 하고, 그러나 절대로 주의해야 하고, 하였다. 이 말을 눈물로 들은 천선생은 마지막 말로 말하기를: 글씨 구어하고, 죽지 말라고 하니, 전대너무나 바빠서 그러는거요, 하였다. 두형제는 몇분동안 형의 유치장에서 연희차다가 동생 이완이로, 이방에 비밀녹음광채가 있을런지 몰라서, 형을 데리고 밖에서 나가서 몇마디 노골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상검호 지도원을 찾아가서, 형님의 건강이 아주외국한데 신성한공기나 좀마이도록 우리 정원에 나가

좀 안아 있게 하여 달고 빌었다. 이말에 사상검토 지도원은 보위상의 직접하가베 연회차로 내려온 장영동주의 초청에 거절하였다가 무슨 처절이나 반지안것인가 생각하고, "말리가 시지 말고, 그레인 후원에서 이야기 하시라고" 허락하였다.

정원 나무그늘 밑에 의자를 놓고 두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동생 이완은 자기 형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형님! 그런데 그 폭동준비라는 말은 어디에 확실히 있기는 있는 모양이오? 없는 모양이오? 하였다. 그리고 자기 말을 계속하면서, 나는 중앙에 앉아 있다가 보니, 여기 저기서 든 소문만 날려오는 것을 들을 뿐이지 딱딱한 것은 알수없거던요. 이말이 처음에는 서부전선 제 4군단에서 어떤 폭동준비가 되었다고 군단장 장평남, 군사위원 최학일 씬말감할것없어 뽕뽕 철적 검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먼저 당중앙의 지시로, 만약의 경우에, 남포에 적이상육하면 강서기 계공공로 동자들을 동원하여 무장하고 적에게 대항할 목적으로 유차 훈련들을 조직 연습하고서는 그후에도 그것어 다 반당 종파분자들이 중앙정부를 반대하는 폭동준비라고 결론하고, 군대 간부들 이외에도 공장 간부들, 군당, 도당 간부들까지 철적 후퇴 하였으니 이것이 대간절 무슨 일어오? 하였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 말하기를, 하기는 여기서, 저기서 중앙을 반대하는 폭동준비를 하였다 하니 그놈의 중앙이 망하기는 특히 망하겠꾸만, 그런데 어느 적을 잡노라고 계속 더거리 가는 결심으로, 헛총 질만 하면서, 권실한 간부들을 애매하게 잡아넣고 못살게꾸는 모양이야.

이말을 들은 천을 선생은 - 있기는 무슨 폭동준비가 없었다고, 그리는거요? 아무런 폭동준비도 없었노. 그저 노루가 제방구에 놀란다. 그 동안 종파잡이, 반인민과 잡어, 반당분자 잡이를 하다보니 무수한 간부들을 다 청산하고 보나, 그외

연계를 맺고 있던 간부들이 무언을 꾸미거나 믿을 수 없고 집을
먹고 불과 몇명만 남은 노간부들을 끝까지 침산하려는 수작업이
하였다.

현물 선생의 사모님 채안나 양은, 자기가 떠난 다음 남 피인에게
불행이 닥쳐올것은 예견도하지 못하고 아이들 5명을 데리고 모스크
바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외국출장중인 가족들의 아이들이 살고있는
합숙에서 살면서 공부할수있는 수속을 밟아가려고, 둘째 시동생을 찾
아 다유켄츠에 도착하였다. 떠날 때에는 아이들을 시애끼 집
에 데려다 주려간다고 하였지만 5명의 아이들도 장기간 친척의
집에 맡겨두고 안심하 살수가 없어서 합숙수속을 하였던것이다. 그러
나 당분간 신학기가 시작될때까지는 여섯집구가 시애끼 집에
서 살 예정이었다. 13년만에 다유켄츠에 돌아온 채안나
양은 만나볼 사람들도 많았지만 우연 친정집과 친척들만 만
나 보며 연산도 힘든 동안 시간은 별탈이 돌러 벌써 반달이
지나갔다. 채안나 아즈리니는 친정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13년간
그립던 이야기, 보고싶던 이야기, 아들이 성장하여 직업을 맡아
서 집장가 거던 이야기와 함께 지난 13년간 변화된 조선의
정세에 따라 된 세는 세 일에 대한 확신성이 없어져서 소위서
파멸되어 갔던 가정들의 다대부는 귀한하고 없으며 많은 가족
이 세대주들은 검거속속되고 현재의 행방불명어란 이야기 등이
끊을사이없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던중 하루야웁 실새
벽에 둘째 시애끼가 자동차를 타고 자기 아즈리니를 찾
아 와서 평양에서 날아온 전보문을 내어놓는 것이었다.

전보문 내용은 : < 형님 안녕하십니까? 요사이에 닳은
몸이 좀 편치 않으니 아즈리니가 아이들은 맡겨두고 신속히
집에 돌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천이화 >

전보문을 받아 쉰 채안나 사모님은 심상치 않은 일이 집에서
생겼다고 예견하고 낙담하였던 것이었다. 채안나 양은 ^{아이} 4명

아직 청정에 떨어지고, 앙뚱 딸 류씨는 도록업고 그날로 다뉴
 켄호를 출발하여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업국우복을 한다음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 해시모님은 평양
 공항에서 작은 시에게 부부를 만나 천이완이 영회하러 강원도
 어포에 갔던 어어기, 또 보련과 누주누주는 사삼검초에결여 지금
 애를 태우고 었다 등 이야기를 듣고, 평양에서 하루 동안 쉬기도 한리
 앓고 그날저녁으로 어포로 출발하였다. 동쪽 상관이 휴전된후 스산
 하게 된 총락이리만 장 5년간이나 생계를 유지한 그고랑이
 밭고사는 정든주인이 있을때에는 의롭지 않던것이 아침에 역전
 에 도착하여도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참 외롭기란 어 말
 할바 없었다. 이전 같으면, 천을선생은 일이 복잡하여 못나온다
 할지라도, 부관과 업전부는 꼭 나와서 집이나 받아주었으리만
 역전 좌우를 살펴봐도 자기를 기다리고 맞아주는 사람을 한
 나 없었다. 그 길로 집에 찾아가니 집에는 잠을외가 잘기워
 있고, 이웃집 아크머니가 말하느라에 의하면, 열대는 사삼검
 초지로 원어 갔고있다고 하였다. 무겁게 들고온 각종양식주머니들
 집 정문앞에 내려놓은 열대참으리 금단분부류가게되었다. 열
 대를 찾느김에 사삼검초 지도원에게 천을선생과의 12경회를하
 려예를짓을 요청하나 날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하곤 저녁
 8시 이후에 잠시말할수 있다고 하였다. 집에 도라와 물을열
 고 가지고온 짐들로 드러놓은 방안의 경형을 살펴보니, 무은놈
 의 난당판언리 갈래를 잡을수없게되었다. 해 만나 사모
 님은 어것이 전부다 사삼검초 지로자리 봄씨라는것을 짐작하
 고 독생각으로, 너이들이 자기를끼리 맘대로 무색하였으면, 무
 리 살림사리 내막이 청백하다는것은 알게되었을것이다
 하고 한편 자기를 안심 식어면서, 다른포인으로는 이런
 까지로 그렇게 존경하련 사람을 무한대물에 적대시하고, 가행무
 색까지 하면서 어야 단편지도러히 알수가 없었다. 해 만나 사모

12
그자리 구들바닥에 주저앉아 버려 저녁불이 끓어오르나 배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한시급히 꼭 만나야 할 상봉의 시간은 이
제로 10시가량 기다려야 하겠으니 하고, 애대구는 생각으로
현현이 느끼며 울었다. 물다가 기진맥진한 몸이라, 벌써
일주일간 특발티우는 근심반반하면서 다슈케논에서 출발한 후 제
에 억지로 자기도 못한 연약한 여자라 몸이라 그물던 구들바닥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벌써 오륙 오 시가 되어 간
한 점심 식사를 하고 었을 때 천정어러니처럼 지내던 아랫집의
머리가 들어왔다. 근관 부인들은 모두 다 친척처럼 다니던 것이 능
구 한분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윽고 머리니 알뜰에 이하
년 이웃집 근관 부인들이 문밖까지 들어올 생각은 제마다 잊지
만 사상검은 당회이며 밀고 달가리라 두려워서 못 들어 오고 있다
전하였다. 그 어버하에게서 근관 들중 벌써 누구-누구는 잘 못되고
누구-누구는 사상검 초에 엄중하게 질려 천을 선명처럼 유취
잠 생활을 한다는 것과, 이등러 근관 아즈러니 들은 사상검 초가
시작 되자 집종리가 완전히 뒤끝근 없다고 하였다. 근관 아즈
러니들은 전부다 저녁이면 저녁식사를 꾸려야 하므로 먹여 잠자
워 놓고 자기들은 논농항아를 지킴으로써 자기 남프린의 제시간
에 집에 돌아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벌써 작정된 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근관
들은 아침에 집에서 나볼 때에 이리엔 맞이박 작별인사를
하고 떠나서, 등가항에는 벌써 오의정봉어 세이엔 도구와 비반즈 하
하나 짚은 여유를 가리고 단단다고 하였다. 해안나 사물남은 어떤
저런, 새로 생긴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은 벌써 저녁
부서기-뒤의 사령부에 갈취비를 하면서 이버니에게 내정스러운
인사를 올렸다. 어버니는 알뜰 노니기를 자리는 살남어를 다 살았
기 때 후에 무서울 것이 하나 없다고 하면서 최후로 돌려 보았
다고 하였다.

현을 선생의 사상검토 평형은 쇠나이나 지금이나 한가지로, 인제는
 벌써 25년이 지난것으로 볼것하고 계속 없는 폭동준비에 대한 지
 시를 고백하라는것과 아이들을 소련에 보내야 보낸것은 소련으로 도망
 치려는것이며, 조선은 앞으로 강한 나라가 될것을 믿지않고 아이들
 을 소련으로 공부하러 보내었으며, 항상 소련을 위대한 나라로만
 보며 그에 모든것을 섬기려는 사대주의자, 우리 조선인민에 대한
 배신자라고 비판하며 계속 받아낸 재우지않고 심문하는것이
 옳다. 현을 선생은 본래 기질이 약한분이였다 5년전에 원산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전복을 당하여 허벅상을 받은
 후 일주일간이나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 그에
 다 지금 사상검토에 들어서면서 유치장 생활에서 큰 열병이나
 식사로 잘하지 못하고 앓고있는것이며 그어느날 저녁 8시 반에나
 되자 처안나 사모님이 자기 남편 현을선생과 1명회가 유치
 장 독방에서 있었다. 처안나 사모님은 처방에서 제일 귀중한
 자기 남편의 보살핌 없이 홀로 남겨진 그 얼굴을 쳐다보고 눈
 물이 북받치며 연사의 말도 병변이 하지 못하고 거저울
 기만 하였다. 현 선생의 들리말라곤 말개는 말에 붙어
 어찌한가 묻고, 소련에 있는 친척들은 모두라 잘있으며,
 아이들도 행복하게 공부하게 되었다고 간단히 말한다음
 계속 묻고 있었다. 이때에 현을선생은 식사를 때는 들레
 로 받아낸 5시간 정도도 재우지 않고 고쳐서로 심문하는일이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죽어야 할것 같다고 하였다. 이말은
 벌써 시애키에게서 평양에 들렸을 때에 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죽어지 않는한 목숨이 살아있는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살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울면서 빌었다.
 그래도야니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죄인이 아닌데 어
 제 자살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꼭참아야 된다고 하였다.

그후에도 7군단 사상검토 회의는 발동되어 높은 열의가 돌아가는
 격으로 계속 자기 인력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변동이라
 고는 없었다. 거의 매일 그 말이 장 말이고 그 격이 장격이었다. 이
 렇게 이윽고 일간 끌다가 사상검토 지도원들도 맥이 지나쳤는지 그
 사상검토회의의 종말을 정을 준비를 하였으나, 기본강령인을 완전히
 죄없이 석방한다는 것은 사상검토 운동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
 이요, 죄가 없어도 그의 "실노"를 조건잡아 출당, 감거, 후복은, 그의 성과를
 미리하기 때문이,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죄를 씻어 놓게 마련이
 었다. 그러나 천을 선생에게 죄를 씻는다 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
 나였다. 그는 수정과 같이 겸백하였고, 이것에 대하여 항상 선
 하였고, 위법과 악이라 는 것은 생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사상검토 지도부는, 나라를 믿지 않고, 당을 믿지 않고, 아이를
 을 노련으로 배내며 보낸 행동은 반당, 배쪽 사대주의 행동임으로
 로 등당 대열에서 출당 석회고 노련으로 후방하는 것이 적당하
 라고 당 총회는 결정했었다. 사상검토 지도원은 어쩔론이 내
 기전에 유치 천을 선생에게 권고하기를 노련으로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천을 선생을 매일같이 죽음이 가까이로 끌고 가던
 사상검토 회의는 선생의 생의 종말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할수
 없는 경우에서 유치장으로 불려 석방하였다. 천을 선생은 집에
 돌아와 복원 앞에서 주먹으로 상을 치며 울었다. 그것은 25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레닌 공산당원이란 정치적 생명이 광
 어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안나 사모임은 말
 씩 하기를 - 이제 그까지 당증은 하여서 말하질소, 그만이
 고 생각하고서도 살아 나온 것이 다행이요, 다른 사람들을 보시요, 인
 자하고 같이 유치장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 상기도 어느 때가
 그 풍금을 당기겠는 몰라서 전 체가 족들은 살기가 하나도 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소. 그러나 당신이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하나님의 덕분인줄 생각하오, 이제 소련에 들어가면 커가는
아이들이나 늙아 끝까지 공부를 식히고 살림사리를 취세워주면
그 아이들의 덕분이라도 아무 염려없이 평안이 살수 있소.

이곳이 조국인데, 여기서 살게되지 못하게 되고 부득불 가게 되었
으니 그것이 얼마나 애송한 일어오, 사람이란 산다는 것이 일하
배부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에 진출하여 지향과
목적있게 정칙적 생활을 하여야 하지 않소? 그런데 언젠가
그 당증을 배워왔거니와, 나의 정칙적 생활은 끝까지 못했
그러나 나는 다 살았단 말이오. 모르겠소 나는 복이 많답하고 앞
이 칸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소.

이 말을 자세히 들던 처안나 사모님은, 어찌나 편안에 주인
의 마음을 잘살득숙려 희망을 조금씩씩이면서 환심시키고 언젠가
부군당에서는 불상다 봤는데 복이 평양에 이사하여 물도 라가
소련 업국부흥을 위하여 될것을 생각하면서;

- 아이구, 별말씀 다 하시구려, 이제 소련에 귀국하여 가
고 다시 일을 잘하면 복당할부로 없겠지, 아무 근심도 하지
않고 복이 이곳을 뜨게오, 하였다.

몇달이 안되나 현물선생 양국은 얼마간이라도 정든곳,
정든 이웃들을 돌려주고 자기근심, 그들에 대한근심을 복에 품
고 떨어지지 않는 거름으로 평안, 시냇기 짐으로 출발하였다.

동생의 집에 도착한 현물선생은 병기총극장으로 있는 동생을
함께 데리고 귀국할것을 결심하고 동생에게 권고하기를,

- 동생! 내가 반당 공파분자로 출당, 출직, 제대되었으니
동생의 앞길도 언젠가 가루악한것만 사실이오, 하니 민족보
위상을 찾아가서, 이런조건에서 일할수 없으니 허인, 제대식
혀 달라고 하오, 형님을 따라 소련에 귀국하겠나 최고사령관
게 건의하피 달라는 호형을 드리었다 하여 대하여, 보위상 자
는 그 환경을 알아볼라고 하면서 최고사령관게 건의하겠단고 하

평양에 우리와 동생의 집이 함께 있는 천을선생의 양쪽은
 불가 오개할 내로 귀국하기를 받았으나, 동생 천어완의 귀국을
 제로 논의상은 궤히 동의하고 최고사령관에게 건의한다고 하였
 으나 민족보위성 총정치국에서 귀국문건을 잡아 끌고서도 큰 반
 의등만 끝내면서 비준이 되지 않아서 더할수 없었다. 총정치국
 은 천어완의 문제도 천을의 문제처럼 사상검토 구렁에 다
 차넣고 확대경으로 그의 문체를 후시하여 보려는 여드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천을선생은 여하한 조건에서도 동생은
 꼭 데리고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던 차 1960년 12월에
 다 비준이 나와 쓰련에 귀국하게 되었으나, 조국을 보내한다고
 쓰련에 귀국자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권부다 자기 데리러 떠나
 가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제꺼리가 되었다. 조선에 나돌때에
 쓰련 정부로 불어 파견받아 와서 사임하였던바, 1948년에
 전체 쓰련군대 성원들을 철거할 때에는 김일성이 조선정부의
 명의로 조선전쪽 간부들은 백프를 들 때부터 들것을 요구하였기에 쓰
 련 출신 조선전쪽 간부들은 조선^어남아 없게 되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와서는 가겠으면 자기 뜻으로 가라고 하니 문제꺼리였다.
 이것이 김일성의 지시가 아니어서는 하북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수 없는 일인데, 이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에게 제기한다는
 것은, 허가는 고사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여비가 없으면 귀국
 허가들을 권부다 취소하여 버리라고 하면, 어때까지 애쓰
 12이 신고하던 일이 권부 수포로 돌아갈 것은 변한 일이었다. 김일성
 이란 사람은 동재자기 때부터, 한번 말하면 변함이 없는 사람
 어기 때부터이다. 그렇다 하여 쓰련 정부에다 제기할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기할 때부터 위험하였다. 물리 허가 절차를 오래동안 끌고
 가지 못하면 역시 권부민이 "어버이"가 성을 내고 그놈들을 보내
 말라고 하면 거저 그만일것은 변한 일이었다. 때부터 하는 수없
 득 가정은 자기에게 있던 모든 가정등을, 여쭙 어복 내복까지 다

팔아 돈을 만들어 가지고 어찌하면 신속히 평양을 떠나도록 하였다.

마침내 천을 선생의 결심대로, 조선에 나갈 때와 같이 자기 동생을 꼭 데리고 한행배로, 애석하나나 경주였던 조선을 등지고 소련, 모스크바로 떠나게 되며 1960년 12월 25일에 도착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두가정은 소련 무력성의 ^{대표적} 마중을 받아 가산 영칭 철도역에서 불어 모스크바 중앙 호텔 "로시아" 1명승 호실에 가족들을 안치하고 1961년을 맞이하는 설까지는 꼭 쉬라고 하였다. 두가정은 1주일 동안 모스크바에서 휴식 하면서 조선에서 먼저 귀환하여 모스크바에 자리잡고 있는 여러 집들의 초대를 받아 어집저집 다니면서 조선에서 사 상검토시 인간의 맞어닥 천대로 가슴속에 깊이 알랑이를 맺 어데한 그 원앙을 품 품안게 하는 감을 받게 되었다. 1961년 1월 4일에야 간부국의 초대를 받아 천선생 형제는 보의성에, 즉 소련 무력성에 가게 되었다. 간단한 신년 연사가 있을 다음 그 날 불어 시작하여 무력성 연금생 우복을 리는 한편 소련 공 산당 조직부를 통하여 타슈켄트에 가서 사책보장문제, 복 안의 취직문제, 아이들의 대학과 중학들에서 학업 계속문 제와 장학금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받은 다음 친척들이 살고 있 는 타슈켄트시로 출발하였다. 타슈켄트에 도착한 천을 선 생은 모스크바에 갖이고온 서류대로, 일절정제문제, 연금에 대한문제, 사책, 복안취직, 아이들의 학업 계속문제 등을 다 해결받은 다음 친척들까지 다 찾아보고 집에 돌아와 1961년 하기불어 중병으로 앓게 되었다. 여러 병원에 돌아 다니고 여 러 유명한 의사들에게 다 보였으나 중한 병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 우르체코공화국 중앙 종합진료소의 진단에 의하면 위암이라고 하였다. 천선생은 계속 그 병으로 인하여 큰

일년간 종환에 계시다가 1962년 7월 10일에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천을 선생이 이렇게 생기왕성한 중년 시절에 자기 생명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정직한 선생을 사상검토의 함정에 빠뜨려놓은 인간 어부의 천대로써 그를 대지함으로써 그의 애간장은 다 녹아 내리게 되었으며, 유치장에 갇혀놓고 10여달 동안 반기아에서 물도 제대로 마시게 못한 것이, 그의 기분 원년인 것이다. 천을 선생의 사상검토가 끝나고 이포에서 떠나 평양에 도착하였을 때 동생은 형에게 물기를, 형님 유치장에서 형님을 잘 공대하였는 모양이구려, 물어 전혀 풀지 않고 피육이 남아진 것을 보니, 하느 동생의 말에, 그럴구 말구, 그 안에서 용치 고기항에 이밥에 계란을 덜구리 안았는대 허였다. 이런 농언어 었은대일 주일이 지나자 아저 허에서 불이, 천을 선생의 뉘비가 계속 곁에서 알기 시작한 것이 막 일개월 지나서야 뉘비가 이전대로 회복되게 되었으나 벌써 정신 어상이 생기는 때로 있고, 발걸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때가 었다고 자신이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생사감을 잡는 것이 김일성이 권인원적 "아버지"가 북한 영민에게 선사한 사상검토다. 그 무기가 애매한 간부들이 몇몇 명이나 산의 무대에서 자기 생명을 잃은 것은 지 력사는 말할 것이다.

천을 선생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 이후 채안나 나모님은 국가와 여러 친척들의 방조, 또 자신의 근연성으로 아들 딸 5남매를 전부다 대학을 나오게 하였으며, 모두가 사회에 진출하게 하였다. 그들중에서 큰 아들 천 불라지미르는 유즈백 공화국 건축성 대리석 골포라지야 부기부관 겸 경리부 회장으로 위신 있게 일하면서 북한의 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국전선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었다.

천을 선생의 장남 천 레오나드 1995. 11. 20.